

가장 낮은 곳에서 실천한 사랑의 봉사

제36회 아산상 ② | 의료봉사상 고영초 요셉의원 원장



쪽방촌에서 방문진료하는 고영초 원장(가운데)과 의료진.

“환자 입원이 가능할까요?” 고영초 요셉의원 원장의 목소리에 초조한 기색이 묻어난다. 수술 직후 퇴원하겠다고 돌아온 쪽방촌 주민을 입원시키기 위해서다.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패혈증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고영초 원장은 직접 환자를 찾아가서 입원하도록 설득했다. 그런데 인근 병원 응급실과 무료진료병원에서 병실이 없어 입원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곳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낫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겨우 입원치료 받았다고 승낙을 받았으니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죠. 언제 환자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고영초 원장은 수차례 통

화 끝에 겨우 한 병원에서 입원 가능하다는 답을 얻어내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 의사를 낳아오는 어부로

고영초 원장은 어린 시절 사제의 꿈을 품고 5년간 신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다가 진로를 바꿔 서울대 의대에 진학해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평생 사제로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했다.

1973년부터 무의촌 의료봉사에 참여한 고영초 원장은 졸업 직후인 1977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무료진료병원인 전

진상의원에서 본격적으로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동료 의사들을 봉사자로 안내하고 병원에 소개해주며 ‘의사 낚아오는 어부’라는 별명도 생겼다. 1987년에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무료진료하는 요셉의원에서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1997년에는 이주노동자를 돕는 라파엘클리닉과 인연을 맺었다. 2023년 요셉의원 원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고영초 원장은 세 곳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다.

“제가 봉사를 권유한 의사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의사는 어떤 직업보다 봉사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직업이라기보다는 성직자만큼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신부가 되지 않고 의사가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고영초 원장은 봉사활동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2006년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료봉사를 다루는 사회의학 강좌를 개설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의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의료윤리와 존엄사 등을 다루고 학생들이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강좌에서 시작




요셉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고영초 원장.

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봉사동아리 ‘감사’는 지금도 라파엘클리닉에서 활동하고 있다.

요셉의원 원장으로 제2의 의료봉사

건국대학교병원 자문교수에서 은퇴한 고영초 원장은 2023년 3월 요셉의원 제5대 병원장으로 취임했다. 요셉의원의 유일한 상주 의사로 주 4일 오후에 환자를 진료하고 원장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안과의사인 둘째 아들도 요셉의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현재 고영초 원장은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쪽방촌에는 고령이나 거동 불편 환자가 많아 찾아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초기에는 의료진을 피하거나 화를 내는 환자들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고영초 원장이 지속적으로 방문해 얼굴을 알리자 환자들도 도움을 주는 의사로 인식하고 진료에 응하고 있다.

고영초 원장은 “신경외과 의사로 수술장에서의 보람 못지 않게 봉사 현장에 있을 때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다. 선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의료봉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글 편집부



전진상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고영초 원장.